

인도, 스판덱스 생산 시작

인도의 Indorama 사는 자국에서 스판덱스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.

히마찰 프라데쉬주(Himachal Pradesh state)의 바디(Baddi) 지역에 위치한 스판덱스 공장의 총 생산량은 15,000 톤/년 규모로, 이는 3단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 초기 생산량은 2012년도에 5,000톤이고, 2013년도에는 5,000톤이 추가로 생산될 예정이다.

지금까지 인도는 베트남, 중국, 한국 및 대만에서 스판덱스를 수입해왔지만, 자국 생산을 시초로 신속하고, 가격 경쟁력이 있는 스판덱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현재 인도의 스판덱스 수요량은 6,000 톤/년 정도이다.